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집회 참석자들이 경기도 안산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원장의 원아 성추행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유창하 기자

추행교장 구속수사 촉구 성폭력 근절대책위 회견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황수연 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 서울시 교육위원)는 9일 "지난 5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신양중학교 황수연 전 교장 등 미성년자 성폭력범들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특히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은 '불고지죄'를 적용해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주변 교사와 교장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승 기자

96. 7. 10

학교 성교육 뜯구름 잡기

생리현상 비디오 1년에 한두번...전문교사 육성시급

박종생 기자

초·중·고교의 성교육이 빈틈 투성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체계적인 성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성교육이 남녀의 신체구조 등 생물학적 지식전수라는 '전통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담당 교사들도 구체적인 교육을 위한 훈련을 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0초등학교의 양호담당 교사는 "여학생은 5학년 때부

터, 남학생은 6학년 때부터 체육교과목의 '성장의 기쁨'이란 단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지만 남녀의 신체구조, 생리현상 등 생리적인 측면만을 교육할 뿐"이라며 "성폭력 및 성추행에 따른 위험이 증대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0여중의 한 교사는 "남녀 생리구조 등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일년에 한두번 보여주는 것이 성교육의 사실상 전부"라며 "성교육을 다룰 수업시간 배정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말

했다.

중·고교의 경우 생물 체육 교과 관련 가정 등 여러 과목에서 성교육 단원이 있으나 모두 생리구조 설명에 치중하고, 성폭력 예방이나 미혼모 등 현실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교사들은 밝혔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전문적인 성교육을 받지 않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0여중 가정담당 이아무개 교사는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교

사재직중 연수교육을 통해서도 성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바 없다"며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가르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주희 위기센터실장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뤄지려면 전문적인 교사들이 먼저 육성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직과목 이수때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필수화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승 기자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학교내 성폭력 사례를 유형별로 발표하고 학교와 가정차원의 대책을 제안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지난해말부터 접수한 상담사례에 따르면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은 △예절교육 사칭 △신체검사나 체벌 빙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박 △취업 미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예절교육이나 성교육을 빙자한 성폭력은 나이가 어린 미취학 어린이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상담소는 밝혔다. 지난 6월 경기 안산 0유치원의 원장이 여자원아 수십명에게 예절교육과 성교육을 겸해 시킨다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건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중·고생의 경우 신체검사를 핑계로 여학생의 옷을 벗기는 등의 성추행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체중을 재야겠다며 2

학년 여자유도부원을 체육관 사무실로 데리고가 브래지어까지 벗기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밖에 교사로서의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방법도 종종 나타난다고 상담소측은 밝혔다. 지난 4월 한 여고의 국사담당 교사가 성적이 나쁜 여학생들을 교내 상담실로 불러 "성적을

더 나쁘게 줄 수도 있다"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여자상고에서는 담임교사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방과후에 학교 근처 여관으로 학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그뒤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가 접수됐다. 최 소장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하며, 수사기관 등도 피해자의 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학생은 은근한 성적요구를 받더라도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 성폭력 교묘

초등생에 교육빙자·중고생엔 성적 미끼

한 것이라고 상담소는 밝혔다. 지난 6월 경기 안산 0유치원의 원장이 여자원아 수십명에게 예절교육과 성교육을 겸해 시킨다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건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중·고생의 경우 신체검사를 핑계로 여학생의 옷을 벗기는 등의 성추행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체중을 재야겠다며 2

학년 여자유도부원을 체육관 사무실로 데리고가 브래지어까지 벗기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밖에 교사로서의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방법도 종종 나타난다고 상담소측은 밝혔다. 지난 4월 한 여고의 국사담당 교사가 성적이 나쁜 여학생들을 교내 상담실로 불러 "성적을